



KIA 김기태감독이 스킨십을 더한 '형님 리더십'으로 오키나와 캠프를 지휘하고 있다. 김다원과 대화를 나누던 김기태 감독이 밀짚모자를 쓰고 덕아웃에 등장했다.(오른쪽)



멘토 강정호

MLB닷컴 “김현수·박병호에 조언”

미국프로야구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MLB닷컴이 소개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25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가 1년 전 스프링캠프에서는 ‘미스터리’였지만 이후 피츠버그의 주전 선수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멘토가 됐다고 보도했다. MLB닷컴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해 성공한 강정호는 김현수와 박병호 같은 한국인 선수들에게 길을 터줬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두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반겼다. 강정호는 “올해는 김현수와 박병호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이라며 “한국 선수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즐겁고 흥분된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OPS(장타율+출루율) 0.816을 기록하고 견고한 수비력까지 펼치며 팀의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김현수는 “내가 지난해 강정호의 활약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제 미국 야구팬도 한국 선수가 강정호 정도는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나”며 미소를 지었다. 강정호와 김현수, 박병호는 현재 모두 플로리다에 있다. 세 구단의 스프링캠프가 플로리다에 치러졌다. 강정호는 두 선수와 거의 매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조언을 해준다고 MLB닷컴은 전했다. 강정호는 단일 시간대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경기를 치러러 이동할 때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줬다고 한다. 박병호는 “강정호와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에 와서도 한국에서 하던 대로 (야구를) 하라고 했다”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투수를 만나더라도 곧 적응할 수 있을 테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해줬다”고 소개했다. 박병호는 지난해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한국인이 새벽점을 샀다며 자신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형님’의 스킨십... 캠프에 웃음꽃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김기태 감독, 타격 시범·훈련 파트너·상담사로
선수들과 함께 움직이며 분위기 메이커 자처

‘형님 리더십’에 ‘끈끈한 스킨십’이 더해졌다.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은 ‘형님 리더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친근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형님처럼 선수들의 마음을 끄는 지도자다. 처음 고향팀의 지휘봉을 잡은 지난해에도 특유의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움직이면서 ‘호랑이 군단’의 변화를 이끌었다. KIA 사령탑으로 맞는 두 번째 스프링 캠프.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선수들은 감독의 야구를 이해하게 됐고, 감독은 선수들의 성장과 재능을 파악하게 되면서 캠프 분위기는 분방하다. 김 감독이 분위기 메이커다. 이번 캠프에서는 스킨십을 더했

다. 김 감독은 실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타격 인스트럭터, 훈련 파트너, 상담사 등의 역할을 하며 선수들과 접촉하고 있다. 김 감독이 티배팅을 하는 선수들에게 공을 올려주는 것은 흔한 장면이다. 가끔은 배팅 게이지에 들어가 야구판을 호령하던 왕년의 홈런 타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난 24일 특타시간. 고영우에게 타석에 바짝 서서 공을 쳐보라고 주문하던 김 감독은 직접 배팅 게이지에 서서 시범을 보였다. 김 감독의 방망이에 맞은 공은 그대로 외야 펜스를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김

원섭, 김주찬, 이범호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선수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특급 인스트럭터다. 선수들과 경기장을 같이 뛰면서 훈련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내기를 좋아하는 김 감독은 얼마 전 러닝 시간에 이인행과 달리기를 시합을 했다. 핸드캡이 적용됐다. 이인행은 외야를 빙 둘러 뛰는 방식이었고, 김 감독은 외야를 가로 질러 가는 코스였다. 결과는 먼저 약속된 결승선을 찍은 김 감독의 승리였다. 스텝없이 선수들과 달리는 김 감독의 스킨십이다. 선수들에게 웃음을 주는 감독이기도 하다.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가 열린 지난

23일, 경기를 앞두고 비가 오락가락 하자 선수들이 덕아웃에 앉아 그라운드를 내다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크크’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김 감독이 유니폼에 밀짚모자를 쓰고 덕아웃에 등장을 한 것이다. 김 감독의 ‘깜짝 등장’에 어린 선수들은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벌개졌다. 김 감독은 “왜 웃다가 마느냐?”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웃음을 참는 선수들 사이를 확보했다. 김 감독은 훈련 틈틈이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나?” 등 선수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다독이는 형님 역할도 하고 있다. 덕아웃에서도 대화는 이어진다. 얼마 전 내야수 윤완주를 일일 수석코치로 임명해 경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스킨십을 더한 형님 리더십으로 2016 시즌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오키나와 캠프다. /오키나와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강원도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의 일환으로 열린 2016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프리스타일 여자 스키 크로스' 출전선수들이 예선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감 손에 쥘 손연재 리자트디노바를 넘어라

26~28일 리듬체조 월드컵 출전

올 시즌 첫 국제대회인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종합 은메달(사진)을 따내며 리우 올림픽을 향한 닳을 힘차게 올린 손연재(22·연세대)가 두 번째 여정에 나선다. 손연재는 26~28일(현지시간)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 도시 에스포의 에스포 메트로 아레나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에 출전한다. 대회 진행방식은 지난해에 열린 모스크바 그랑프리과 같다. 첫날인 26일에는 후프와 볼 개인종합 예선이 펼쳐지고, 27일에는 곤봉과 리본 개인종합 예선을 치러 4종목 합계 점수로 개인종합 메달 수상자를 가린다. 이어 각 종목 상위 8명이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열리는 종목별 결선에 출전한다.



손연재는 개인종합 예선에서 C조에 속해 있다. 한국과 핀란드의 시차 7시간을 반영하면 손연재가 출전하는 C조 후프와 볼 예선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0시 25분~오전 1시 25분, 곤봉과 리본 예선은 27일 오후 11시 40분~28일 오전 0시 40분에 열린다. FIG 공인 대회인 이번 에스포 월드컵에는 우크라이나의 에이스인 간나 리자트디노바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자트디노바는 러시아체조연맹에서 주관한 모스크바 그랑프리에는 러시아와의 결기러운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불참했다. 손연재가 벨라루스 스타뉴타(벨라루스)와 더불어 리우 올림픽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리자트디노바와 올 시즌 처음으로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손연재는 지난해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제외하고는 지난 시즌 스타뉴타와 리자트디노바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도 손연재가 개인종합에서 11위에 그친 반면 스타뉴타는 동메달을 획득했고, 리자트디노바는 5위에 올랐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이번 대회에는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손연재는 올림픽을 겨냥한 새 프로그램에서 장기간 포에테 피봇의 난도를 높이고, 댄싱 스텝을 프로그램 요소요소에 빈틈없이 배치했다. 장기를 살리면서도 모험을 피하지 않은 손연재의 고독점 전략은 지난해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스타뉴타를 제치고 자신감을 얻은 손연재는 이번 에스포 월드컵에서 리자트디노바까지 넘어선다면 올림픽 전망을 한층 더 밝힐 수 있다. /연합뉴스